

월요광장

‘기생충’과 ‘로컬’



최유준 전남대 호남학과 교수

작년에 한국에서 1000만 관객 동원을 달성하고 칸영화제 황금종려상까지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새해에도 화제를 이어 가고 있다. 봉준호는 ‘살인의 추억’ ‘괴물’ ‘설국열차’ ‘옥자’와 같은 영화들로 이미 세계적 감독의 반열에 올랐지만, ‘기생충’은 해외에서 평단의 반응을 넘어 광범위한 대중적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필모그래피에서 정점을 찍고 있는 듯하다.

한편으로 이 영화와 관련한 봉준호의 촌철살인 해외 인터넷 멘트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아카데미상 수상 가능성에 대한 미국 매체의 질문에 답했던 그의 일갈은 특히 인상적이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국제 영화제’가 아니라 ‘로컬 영화제’라는 것이다. 외국어 영화에 대한 배타성으로 악명 높은 미

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한 비판적 언급이었는데, 그런 비판에 응답하기라도 하듯이 다음 달에 있을 아카데미 시상식은 ‘기생충’을 유력한 작품상 후보로 올려놓은 상태다.

‘오스카상’이라는 별칭과 함께 한국의 대중에게도 영화상의 대명사로 간주되어 왔던 아카데미 시상식을 ‘로컬 영화제’로 일축한 봉준호 감독의 두드러진 배짱이 작품상 수상 이상의 의미를 던져 주는 듯하다.

하지만 그가 말한 ‘로컬’의 의미는 좀 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지난 5일 미국에서 열린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영화상’ 수상 소감으로, 자막 읽기를 꺼려하는 미국의 영화 관객들을 향해 “자막이라는 1인치의 장벽을 넘으면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그의 생각을 요약하자면, 미국의 영화판이 ‘로컬’에 머무는 것은, 다른 ‘로컬(들)’에 대한 포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프로야구의 챔피언 결정전이 ‘한국시리즈’인 데 비해 미국 프로야구의 경우는 ‘월드시리즈’인 데서도 볼 수 있듯이, 20세기 이래로 미국은 스스로 ‘세

계’의 대표를 자처해 왔다.

인종차별화에도 같은 미국 사회에서 외견상의 다민족·다문화 풍경이 그와 같은 환상을 정당화한다. 하지만 미국은 이른바 백인 앵글로색슨 개신교도(‘WASP’)가 주도하는 사실상의 ‘로컬’ 사회라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영화 관객들의 영어 이외의 언어에 대한 배타성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봉준호 감독이 새삼스레 지적한 셈이다.

자신이 ‘지역’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채 스스로 ‘세계’를 대표한다는 식의 관점을 일컬어 우리는 ‘제국주의적’이라고 말한다. ‘국제적’(international) 혹은 ‘전 지구적’(global)인 것과 ‘지역적’(local)인 것 사이에는 변증법적 관계가 있다.

미국의 관객들이 영화 ‘기생충’에서 그려지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은 한국인들 자신에게도 지역적 삶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킨다. 케찹과 한류의 인기가 그렇듯 한국의 문화가 전 지구화의 물결 속에서 세계로 확장될수록 그 원심력에 상응하여 내적으로 향하는 문화적 구심력도 동시에 발휘되는 것이다.

기고

광복군이 광주 방림동에 살아 있다



정동재 광주시교육청 주무관

만날 수 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 학생들은 살아 있는 역사를 곁에 두고 밖으로만 떠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

광주시교육청 공보실에서 근무할 때인 지난해 설 명절, 같은 부서 직원들과 애국지사인 이준수 할아버지 덕에 세배를 드리기 위해 찾아간 적이 있다. 주관적으로 봤을 때 그의 집에서는 외로움과 쓸쓸한 분위기가 풍겼다.

흐르는 세월은 광복군 할아버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남겼다. 거동 역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준수 할아버지의 미소 하나만큼은 더없이 멋졌다. 밝은 미소와 함께 내민 그의 손은 유독 따스했다. 그날 그와 나는 악수가 잊혀지지 않는다.

광주시교육청은 중국과 일본으로 학생들을 보내 역사와 미래를 배우는 교육 과정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

광주학생독립운동 발원지인 지역 학생들이 현지에서의 역사 교육 이후 돌아왔을 때 ‘아! 성장했구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각 사업을 담당하는 교직원

들도 이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다만 ‘집 근처 명소는 찾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광주에는 광복군 이준수 할아버지가 살아 계신다. 그 시대를 살았던, 항일 현장을 누볐던 생생한 역사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지만 우리는 아직 그를 외롭게 두고 있다는 점이 항상 마음에 걸린다.

우리 학생들은 안중근 의사는 만나지 못해도, 살아있는 광복군과 악수 한 번을 나눔으로서 특별한 역사교육을 배울 수 있다고 확신한다.

지난해 9월 지역 고등학생 80명과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광주교육청 동북아 평화탐방단은 현지 조선족 학생들과 만주 곳곳에 위치한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했다.

나도 그 여정에 함께 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학생들은 성장했고 달라졌다. 유적지를 돌아본 것만으로도 성장한 이 친구들이 살아있는 역사를 마주하게 되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20세기는 유럽이나 미국이 곧 ‘세계’ 그 자체인 시대였다. 그것은 예컨대 20세기의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음악의 아버지’나 ‘음악의 어머니’는 유럽인이어야 했던 이유가 될 것이다.

21세기의 초엽에서 우리는 그러한 서구 중심주의적 혹은 미국 중심주의적 시대의 종말을 지켜보고 있다. 모든 ‘중심주의적’ 세계관에 대한 비판의 의미에 서건, 구체적 장소에 기반한 감성 공동체 구성의 의미에서건, ‘로컬’은 새로운 시대를 표상하는 핵심어 가운데 하나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역적 보편성’ 혹은 ‘구체적 보편성’의 요구에 대한 한 가지 해답을 봉준호 감독과 그의 영화 ‘기생충’이 예시해 보여 주는 것이다.

영화 ‘기생충’의 극적 내용에서도 ‘로컬’의 변증법을 읽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계급화된 사회에서 빈자가 기생충일까, 부자가 기생충일까. 중앙집중화된 사회에서 ‘중심’이 기생충일까, ‘주변’이 기생충일까.

해결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 설 파하듯 우리는 서로에게 기생한다. 그 사실을 망각할 때 파국이 일어나는 것이다.

社說

전과자 ‘우글우글’ 총선 후보 옥석 잘 가려야

오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서는 이 지역 예비후보 가운데 절반 가까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광주·전남 18개 선거구의 여·야 예비후보는 87명이며, 이중 43%인 38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청소년 강간과 상해·폭행 등으로 실형을 받은 예비후보들도 적지 않았다. 반복되는 음주운전으로 전과 기록이 4-8건에 달하는 이도 있었다. 학생운동가 출신 예비후보들이 많은 더불어민주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가 많았다. 두 건 이상의 전과 기록이 있는 예비후보도 20명이나 됐고,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한 예비후보도 다섯 명이 있었다.

광주 지역 한 야당 예비후보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 강간 등) 등으로 징역 1년형을 받았으며 전남 지역 한 야당 예비후보는 지난 2002년부

터 2017년까지 세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는 등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도 했다. 전남 지역 또 다른 예비후보는 음주운전과 상해 등 무려 여덟 건의 가장 많은 전과 기록을 등록했다.

선거법 개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최근 전국적으로 예비후보를 대거 등록하고 있는 한 정당인 경우 광주·전남 예비후보들의 전과 기록이 유독 많았다. 이 정당엔 두 건 이상의 전과 기록이 있는 예비후보도 많아 ‘비례대표를 노린 무분별한 출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자질을 꼼꼼히 따져 부적격 후보는 엄격하게 가려내야 한다. 선관위 홈페이지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에 전과 기록이 공개되고 있다니 잘 살펴보고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후보들은 표로 걸러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유권자의 선택에 앞서 애초부터 함량 미달 후보들의 출마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안나푸르나 실종 교사들 수색·구조 총력을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트레킹을 하던 한국인 교사 네 명이 눈사태로 실종됐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들은 네팔 오지로 교육 봉사 활동을 떠났다가 주말을 이용해 주변 산자락을 오르다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사고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7일 오전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 코스인 해발 3200미터의 데우랄리 지역에서 발생했다. 충남교육청 소속인 교사 아홉 명이 트레킹에 나섰다 하산할 때 눈사태가 덮쳤고, 이로 인해 교사 네 명과 네팔 가이드 두 명이 쏟아져 내린 눈에 휩쓸려 실종된 것이다.

이들은 지난 13일 한국을 출발해 오는 25일까지 네팔 현지에서 교육 봉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당시 전남도교육청의 ‘청소년 미래 도전 프로젝트 히말라야 팀’에 참가한 학생과 교사 21명도 같은 코스로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에 오르려다 불과 200여 미터 전방에서 눈사

태를 목격하고 곧바로 철수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고가 나자 네팔 경찰 구조 팀이 현장에 급파됐지만 며칠째 폭설이 내리는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도 외교부 신속 대응 팀 등 일급 명으로 구성된 1차 선발대를 현지에서 파견했다. 하루빨리 날씨가 좋아져 신속한 구조 활동이 이뤄지기를 기원한다.

정부는 네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고 수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고 발생 구간은 히말라야 고산 지대가운데서도 한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트레킹 코스 중 하나다. 하지만 약전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 시즌에는 곳곳에 위험이 산존한다. 앞으로도 해외 봉사나 청소년 도전 활동에 나설 경우 계획 단계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우리 음식 가운데 호불호(好不好)가 뚜렷이 갈리는 음식이 흉어다. 코끝을 톡 쏘는 후갈(嗅臍)은 웅만한 음식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강렬하다. 바로 이 맛 때문에 누구는 흉어를 먹는다고 하고, 또 누구는 아예 손사래를 치기도 한다. 마름모꼴에 납작한 몸통, 돌출된 주둥이와 작고 찌어진다.

나주 영산포는 흉어의 집산지이다. 내륙의 포구였던 영산포는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남도 물류의 중심지였다. 남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은 영산포를 통해 전국 각지로

출하되었다. 흑산도 근해에서 잡힌 흉어 또한 내륙 수운을 타고 영산포에 이송됐는데, 이 기간 발효가 이루어졌다. 흉어의 맛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자연 조미료와 같은 게 바로 삭힘의 과정이다. 매운맛에도 순한 맛과 보통의 맛이 있듯이 흉어 또한 숙성 정도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이번 주에는 우리의 고유 명절인 설날이 들어 있는데, 흉어는 남도 사람들이 제사상에 올리는 대표적인 음식이다. 아무리 산해진마라 해도 흉어가 빠지면 ‘떡갈 것 없다’

는 말도 있다. 음식의 가치수위는 별개로 흉어가 올라오면 ‘상이 참 곁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결쪽한 막걸리에 묵은 감자와 흉어 및 삶은 돼지고기를 곁들인 ‘삼합’의 맛을 최고 별미로 친다.

이뿐만 아니라 흉어는 눈, 코, 입, 혀, 목 넘김 등 오감을 자극한다는 것이 흉어 예찬론자들의 찬탄(讚歎)이다. 붉은 속살과 독특한 냄새, 쫄깃한 식감, 씹는 맛, 부드러운 넘김 등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맛은 고상함과

흉어

품위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닌가 보다. 날것의 건강함과 범속의 비루함에도 진미가 깃들어 있

다는 사실을 흉어를 통해 알게 된다. 바야흐로 모든 것이 어수선한 시절이다. 정치·사회 각 분야에서 이기심에 물든 불행사나운 모습이 눈에 띈다. 비리에 물든 추악한 냄새가 진동하고, 정체되지 않는 시끄러운 말들도 넘쳐 난다. 이는 선거 시즌에 접어들면서 더욱 확실되는 추세다. 하지만 잘 삭혀야 제 맛을 내는 흉어처럼 부패한 정치인이 아닌, 잘 발효된 정치인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박성진 문화부 부장skypark@

기고

해외 봉사 활동의 기쁨



장현희 동강대 임상병리학과 3학년

장도 폴리고 낮은 나라에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반다아체에서 맡은 봉사 활동은 지역 초등학생 건강 검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학교 보건도 좋고 의료 기술이 뛰어나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쉽게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반다아체 지역은 학교 보건이 굉장히 낙후돼 있어 기생충이나 질병에 걸린 아이들이 바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조차 모르고 지내는 아이들도 다수였습니다.

아이들의 건강 검진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기생충들을 접할 수 있어 앞으로 취업해 관련 업무를 해야 하는 저에게는 너무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반다아체 지역 초등학교나 정부에서 위생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실

시하면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훨씬 많이 개선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한국국제협력단인 코이카(KOICA)에서 9년째 반다아체 지역 초등학생 건강 증진 사업을 진행해 지역 아이들의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개선된 모습을 보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진국에서 이런 건강 증진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전 세계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다아체 현지에서 건강 검진 외에도 아이들과 더욱 친해지기 위해 풍선 아트를 해주고 막대사탕도 나눠줬는데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풍선과 사탕 하나로 행복해지는 순수한 아이들을 보니 저까지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부모님과 함께 봉사 활동을 하면서 막연히 해외 봉사 활동도 해보

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동안 혼자 계획하고 실천하기에 막막해 시도조차 못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해외 봉사 활동을 다녀올 수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히 온전히 내 힘으로 남을 돕고,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물론 봉사를 하는 저도 행복함과 뿌듯함을 느끼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에 현지에 머물렀던 열흘 동안 힘들기보다 보람 있고 소중한 기억이 더 많습니다.

배울 점이 매우 많았던 봉사 활동이었기에 후배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저하지 않고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꾸준히 자기 계발을 하며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겠다고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52 전남본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4 체육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